

2023 제1차 임시이사회

회 의 록

「충남연구원」 2023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회 의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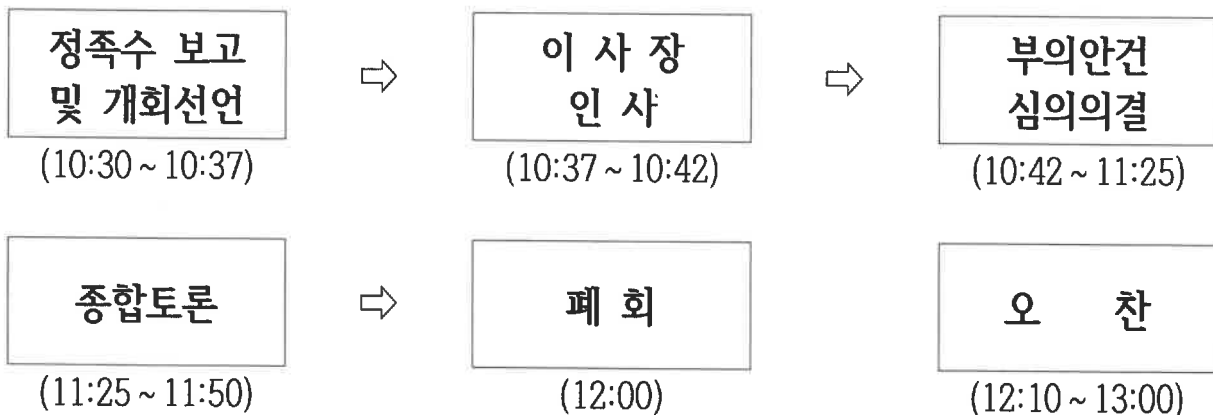
1. 일 시 : 2023. 8. 31(금), 10:30 ~ 12:00
2. 장 소 : 연구원 4층 회의실
3. 참 석 : 총 11인(이사 10, 감사 1)
 - 불 참(8명) : 이사장, 김영만 이사, 송준호 이사, 정세은 이사,
지진호 이사, 홍성주 이사, 정연기 이사, 하승수 감사

4. 부의안건

□ 심의안건

- 제1호 정관개정(안)
- 제2호 규정제정규정개정(안)
- 제3호 직제규정개정(안)
- 제4호 재무회계규정개정(안)
- 제5호 선임직 이사 선임(안)
- 제6호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5. 진행흐름



□ 회 의 결 과

□ 간사 안내

- 오늘 이사장님이신 김태흠 지사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충남연구원 정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께서 "김수민" 이사님을 '회의주재 이사'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의해 김수민 이사님께서 이사장을 대행해 이번 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었습니다.
- “김수민” 이사님께서서는 이사장 좌석에 앉으셔서 이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이사 이사장석으로 이동]

□ 개 회(간사)

[국민의례, 성원보고]

□ 개회선언(김수민 이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2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인사

-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7~8월은 참 무더웠는데 어떻게 다 무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기하게도 처서가 지나니까 더위가 한풀 꺾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자연의 오묘한 섭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이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연구원이 지난해 충남도 공공기관평가에서 최고등급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이따가 원장님이 비결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따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안건 심의의결

<의 장>

- 그러면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 먼저 회의록 기명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수고해주실 두 분의 이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선임된 이사님이 임재영 이사님, 정세은 이사님인데 오늘 정세은 이사님이 안 오셨고.
- 그러면 정세은 이사님 대신 류주현 이사님이 수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류주현 이사>

○ 예.

<의 장>

○ 두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사 전원>

○ 예.

<의 장>

○ 그러면 두 분 이사님께서 회의록 정리에 수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 장>

○ 다음은 간사가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할 심의안건을 보고해주시겠습니다.

<간 사>

○ 오늘 심의의결 하실 안건은

□ 심의안건으로

- 제1호 정관개정(안)
- 제2호 규정제정규정개정(안)
- 제3호 직제규정개정(안)
- 제4호 재무회계규정개정(안)
- 제5호 선임직 이사 선임(안)
- 제6호 제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오늘 부의된 심의안건은 총 6건입니다.

<의 장>

- 안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의된 안건을 유사 안전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한 후에 일괄 심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예.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부의된 안건을 유사 안전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정관 및 규정(안)으로

- 의사일정 제1호 정관개정(안)
- 제2호 규정개정(안)
- 제3호 직제규정개정(안)
- 제4호 재무회계규정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님은 4개 안건에 대해 차례차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부의안건 보고]

<의 장>

-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꼼꼼히 살피셔서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이사>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이즈센터하고 과학기술정책진흥원을 합병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늘고,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증가되나요?

<의 장>

- 설명해 주시죠.

<간 사>

- 저희 연구원에 라이즈센터는 하부조직으로 들어오고요. 과학기술진흥본부는 부설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는 18분이시고, 라이즈센터 신규인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제규정에 보면 저희 본원 97명과 라이즈센터 24명을 합친 121명이구요. 부설조직 운영규칙은 따로 운영되고, 과학기술진흥본부는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18명인데, 그중에 3명 관리직은 본원으로 들어왔고, 순수 연구자분들은 15명 계십니다.
- 예산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추경예산(안)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저희 연구원 예산이 일반회계가 15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본부가 69억5,900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지원단이 86억 7,300 정도 됩니다.

- 일반회계 예산이 좀 늘어나는 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라이즈센터 관련된 HiVE사업 22억이 국비 18억과 도비 4억이 들어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이사>

- 조직하고 예산도 커지고, 또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할 일도 많아지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살펴보시고요. 말씀하십시오.

<류주현 이사>

-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선임직 감사는 원장이 추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추천을 여러 명 받았을 때 원장님이 선별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원장이 추천하여”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

<원 장>

- 이사님 선임도 마찬가지로인데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우선 이사장님인 도청과 협의를 해서 어느 분야에 어떤 이사님이 필요하겠다 하면 원장이 다양한 분들을 추천도 받고 해서 건의를 드리면 이사장님이 도청에서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선임하는 절차가, 감사님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의 장>

- 말씀하시죠.

<김황배 이사>

-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개편이 되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 우선 정관개정 부분에 있어서 이사 종류가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 노동자 이사 이렇게 구분하는데, 노동자 이사는 대충 알겠어요,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선임직 이사하고 당연직 이사가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 두 번째, 재무회계규정에 보면 부설조직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사업지원단, 두 곳을 둔다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구원이라는 게 정책연구도 하고 기본연구도 하고 이러는데, 부설조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두었을 때 연구원 고유의 가지고 있는 업무나 역할의 중복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 장>

- 선임직 이사님은 저희 출자 당시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이사장님을 당연직으로 하시고 15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두 분씩 임기 동안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님이시고요. 선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님이 임명하는 그런 과정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부설조직은 저희 충남연구원 조직 중에서 이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본원이라는 개념으로 다 묶을 수 있고, 부설조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부설조직은 근본적으로는 원래 연초부터 충남도의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통합하여 배정해주는 부분에서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업국, 총괄하는 기조실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위·수탁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반적인 사업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부설조직은 사업비 베이스로 자금을 받아서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환경국과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 영역에서 거기는 기후환경이라든지 물환경이라든지 본원의 어떤 환경 분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구분을 하자면 본원의 박사님들은 정책연구, 거기에 계신 박사님들은 기술 파트 쪽에 특화되어 있으십니다.

<김황배 이사>

-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원 장>

- 특별회계라고 보통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배 이사>

- 그럴 것 같은 한데, 하여튼 충남연구원 자체가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부설조직으로 두는 것보다는 본부조직으로 두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 장>

- 예. 항상 그런 논의는 진행 중이고, 예전에 저희 센터가 최대 9개까지 확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경영 효율화 때문에 5개 기관이 이전이 되고 해서 지금은 조금 적어졌는데,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배 이사>

- 일단은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축하를 드립니다. 또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리더십에 같이 동참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 저는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혹시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개편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정관 내용에 개정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그것 외에 또 뭔가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에서 정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조직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개정을 발의한 이유가 개정이유와 관련된 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에서 개정이유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보충해서 듣고 싶어요.
-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정리한 것은 상당히 잘 정리되고 눈에 확 들어 오는데, 좀 염려가 되는 게 조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조직도상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부설조직이 있다면 위치는 어디에서 하는지. 여기 공간이 좁다고 항상 우리가 걱정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답답해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관에 꼭 박아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제는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부설조직이라고 해서 어디 외곽에 두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특히 그러다 보면 공간 확보에 대해서 준비가 돼서 이런 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보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돼 있는데 그런 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장>

- 정관은 저희 연구원의 헌법에 해당되는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애매한 표현이나, 또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미흡하게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이고, 특별하게 저희의 기구 변경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관은 상위 법령과의 일치, 그리고 모호한 규정들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말씀 주신 직제 확대와 관련하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간 문제가 협소하여 부설조직은 정책사업지원단과 과학기술진흥본부는 내포로 사무실이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과학기술진흥본부 아산에 있는 오피스를 내포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라이즈센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육부의 사업을 하게 되는 시점이 2025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이게 세팅이 좀 되어야 하는데, 정원 24명을 한꺼번에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무의 양에 따라서 올해 한 3명 정도, 내년 상반기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인데, 그럴 경우에 24명이 확충이 다 된다고 봤을 때 사무실 협소함의 문제가 있고, 그건 좀 추후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즈센터는 본원 직제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주에 위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배 이사>

-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정관 개정하면서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도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확장해서 확보하는 계기로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 장>

- 예.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청에서도 우리 공간의 협소 문제나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데, 장기적인 대안부터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 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가요?

<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1호 정관개정(안), 제2호 개정규정(안), 제3호 직제규정개정(안), 제4호 재무회계규정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5호 선임직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감사합니다.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분의 선임이사 후보 이력이 쪽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우선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시죠.

<원 장>

- 충남연구원의 업무에 충실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이사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가 통합이 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사님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 담당국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라든지 산업경제실이나 이런 데하고, 또 서울 중앙부처에서 과학기술진흥본부에 대한 추천을 받고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입장을 잘 살펴서 이사회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일단 세 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예.

<의 장>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니까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이사 전원>

- 예.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5호 선임직 이사 선임(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6호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굉장히 복잡하시죠?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이사>

- 센터 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하기관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13개 센터가 있었던가요?

<원 장>

-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센터 포함해서 9개, 5개가 이관됐습니다. 지금 센터 개념으로 4개 있습니다.

<박종찬 이사>

- 그럼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라이즈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될 거니까,

<원 장>

- 예, 과학기술진흥본부하고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찬 이사>

- 그러면 전반적으로 연구원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연구원을 어떻게,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셨으니까 연구원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잘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잡히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원 장>

- 저희가 하여튼 통합의 정신을 좀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묘안들을 많이 강구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충남연구원의 연구센터는 그야말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연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과학기술진흥본부는 R&D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국가 공모사업 공모의 기초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라이즈센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모절차를 수행하게 되고.

- 과학기술진흥본부하고는 연구에 있어서도 신산업이라든지 미래기술 쪽에는 기존의 박사님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 그리고 라이즈센터는 앞으로 충남도 내 대학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교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각 대학과 우리 연구원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학술연구에 기여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하반기에 중장기계획은 컨설팅을 받아서 통합기관은 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통합된 비전을 도출하고 새로운 업무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이사>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도 되고 이관하는 기관도 있고 해서 연구원의 어떤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잘 설정하셔서 좋은 연구기관을 만들어주실 것을, 능력도 있으시고 또 여러 업무를 통해서 그동안 경험을 많이 하셔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원 장>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정배 이사>

- 잠깐 하나만요. 회계는 꼼꼼하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추경 사유를 보니까 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본연의 연구팀들도 있잖아요, 충남연구원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센터가 9개 플러스 2개 하면 11개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원 장>

- 5개는 이관이 기존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설조직으로 4개 센터가 있고, 본원에 있는 라이즈센터는 본원 직제가 되겠습니다. 부설 센터라고 하면 지금 4개 센터만 해당이 되는데, 과학기술진흥본부하고 합쳐서 5개가 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결레가 되는 애기인지 모르겠지만, 센터를 좀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더 확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의 장>

- 기본적으로 본원 직제로 일관성 있게 통합되는 게 옳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른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많이 치우쳐 있는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박정배 이사>

- 많으면 합치라는 얘기를 하고, 합치면 다른 일들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원장님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또 이관돼서 오는 센터도 있고 그랬을 때 충남연구원 본연의 팀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 주축된 외에 센터가 이렇게 많아지면 줄이라고 또 외부에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원 장>

- 그러기도 하고,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어서 규정을 따로 적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신으로 하나의 집체 속에서 통합이 되는 방향성은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로 사업부하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의견 차이로 인해서 조금 이견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정배 이사>

- 저는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더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이 이번에 보니까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봅시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한 원장님도 탁월한 행정가이시지만 문화, 예술, 행정과 경영에 굉장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충남연구원에도 문화도시연구센터라든지 충남문화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물론 본 팀에서 진행하는 게 있지만,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련해서 충남도는 공주하고 천안 두 도시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새롭게 하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관광거점도시라고 해서 1천억, 5백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보령은 지원했다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이랬던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남 문화, 충남 관광 관련해서 센터를 한번 만들어서 좀 더 집중화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확대할 수 있다면 그런 센터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원 장>

-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 본원 연구진 중에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관광을 담당하는 박사님이 계시고. 부족합니다. 저희의 역량으로 볼 때 문화예술 쪽이 약간 비중이 부족하기는 사실입니다. 박사님이 계시는 건 사실이고.
- 보통 센터라고 할 때는 포커스가 사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센터라고 하면 도청 문화관광국의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포지션이 될 수 있는데, 연구의 기능보다는. 그게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기구하고 중첩될 소지도 있어서 연구기능의 강화라면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배 이사>

- 여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연장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미술관도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도 넓은 의미에서 꼭 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화도시센터라든지 그런 산업화가 관계되는 쪽하고 문화예술 관광을 접목시키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질문한 김에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싶은 사항은, 사업센터 이런 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설명할 때는 알겠지만 신규 사업 하는 라이즈센터라든지 과학진흥본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 내지는 보고자료 이런 부분이 제시된다면 저희가 나중에 회의 참석할 때 이해가 좀 빨라서 회의 진행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 장>

-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글로 되어 있어서 이사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도 느꼈습니다.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배 이사>

- 저는 예산보다는 조직을 많이 바꾸시고, 여러 가지 용어가 분산돼 있던 규정들을 많이 바꾸셔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느끼는 게 부설기관들이거든요. 다른 기관들이 통폐합되면서 뭐랄까, 조직이 퍼져 있다는 그런 느낌은 좀 들거든요. 앞으로 바꾸겠습니다만, 센터, 본부, 지원단, 위계가 한마디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고요.

- 2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세가 연구원에서 직접적인 정책이나 집행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나 데이터베이스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의 어떤 데이터의 본산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원에서. DB센터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충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제공해 주는 것, 주로 정책 지원이라든지 연구 그런 것도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센터. 국가는 가지고 있는데 충남도 그런 형태의 빅데이터센터라든지 DB센터라든지 분야별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테니 그런 센터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직들도 지금은 통폐합 단계여서 분산돼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원 조직에서 추려서, 그러면 행정이라든지 중복성, 유사점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고 슬림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원 장>

- 사실 저희가 기관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신설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용어에 있어서 조직체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용어조차도 실·단·센터·본부 이래가지고 어수선했습니다. 저도 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일관된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준비도 시작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연구원의 역량으로 센터 체제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한 느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사님들 중에는 통계청 충남지역본부와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IS라든지 마이크로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박사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센터화 하는 노력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많으셔서 데이터정책관이라는 직제가 있고, 그분이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써서 민간데이터를 사서 저축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데이터 그런 걸 집적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 등등을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배 이사>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이 복지 쪽으로, SOC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부분 민간투자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투자를 국가사업도 있고 지방사업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공공투자 관리센터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원 장>

- 저희도 있습니다.

<김황배 이사>

- 그걸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원 장>

- 예. 그래서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까지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이정일 이사>

- 안건심의 끝나고 종합토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연결 지어서 원장님께 그동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변화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등등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따라가기도 좀 어려워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그동안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성과들은 좀 있었고, 이후 과제들은 좀 이런 게 있겠다, 이렇게 전반을 한번 조망도 좀 여건 되시면 해주시고요.
- 일단 지금 본원 중심의 연구기능들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변화되는 경영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일부 기존의 센터들이 이관하면서, 센터들도 사실은 정치, 행정 변화에 따라서 제한되어지는 것들을 연구원이 받아내면서 풀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그러한 변화들이 갖고 있는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포인트가 어디에 좀 갖춰져 있는 건지. 내부 변화나 본원 중심의 조직 내부의 효율화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들을 한번 쪽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의 장>

- 원장님, 이따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 우선 오늘 안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들 안 계시죠?

- 그러면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예.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6호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 장>

- 이상으로 오늘 논의할 모든 사항은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까지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먼저 제가 한 가지 연구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회를 시작할 때 전차 이사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또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했던 내용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매이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일관성도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처리 방법의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우선 원장님께서 공공기관평가 1등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의 비결과 소감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해서도 정리된 생각을 너무 길게는 마시고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 장>

-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정말 미흡한 준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이사님들이 제안하신 좋은 아이디어 중에 이사회를 우리가 워크숍 형식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또 예산 관련하여 방식의 변경에 따른 제안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는 꼭 오늘 이사회를 포함하여 그간 나온 제안사항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는, 안건을 보고함에 있어서 풀어서 쓰다 보니까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사님들께서는 얼마나 이해하시기가 어려울까. 직제표라든지 아니면 정원분류표라든지 그런 백데이터도 제공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개선을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일 이사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도정의 변화가 컸고, 둘째는 기관의 경영 효율화로 인한 기관의 정체성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도정의 정책 방향성에 연구로 뒷받침하는 기능이 크다 보니까 도정의 변화로 인한 어떤 큰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좀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8기 도정에서도 도의 실·국들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로서 뒷받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과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무원들은 템포가 좀 급합니다. 빨리빨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차가 있고요. 그런 것을 좀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숙제인데, 오래 기다렸는데 결과물이 나왔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 센터 이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나름대로 센터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들이 있었습시다만, 본질적인 업무의 방식 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 요인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트랙에 익숙하신 분들과 사업의 트랙에 익숙하신 분들, 또 위·수탁 관계에 의한 사업을 받아서 하는 센터 간에 그게 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센터 체제보다는 본부 조직으로 다 통합되는 게 바람직한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그리고 기왕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조직 구성원의 변화도 생겼고 신설된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충남연구원이 우리 이사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님께서 경영평가 관련해서 그 요인을 한번 말씀해보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인이라기보다는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래도 단합된 모습으로 업무에 매진한 결과가 아니겠냐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둘째는 우리 이사님들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충남연구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변하지 않았겠느냐. 그중에는 언론인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세 번째는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충남도정에 조금 뒷받침하는 노력을 도청에서도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제 기준으로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또 충남도청의 입장에서, 이사님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더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신 우리 원장님과 여기 연구원 전체 직원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일동 박수)
-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류주현 이사>

-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평가 1등한 것을 정말 축하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신 것은 잘 들었고요.

- 거기에 하나 더하면, 이게 5개 이관하고 했었던 조직의 개편이 혹시 점수가 좋게 반영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이게 그 원인 이라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찾아서 간단하게 라도 문서화해서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 그리고 말을 하려고 발언권을 받은 것은 가장 아쉬워서. 앞에 김황배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에 원장님부터 하여튼 제가 적어도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아까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정도 됐으면 진짜 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는 단계 인데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한 답변밖에 안 받는 게. 그러니까 통계청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마이크로데이터 같은 것들을 누적이 되고, 보고서에서 이런 과제 안에서 유료화해서 된 것들 했는데, 그게 정말 한 단계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 또 하나는 수해가 이번에 나면서 ‘우리 센터에 이런 재난안전센터가 있는데 역할을 했으려나? 이런 유사한 과제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또 새로운 발주가 준비되는 것이 있겠지만, 조금 더 강화시킨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마지막으로 가장 사소한 건데요. 계속 충남연구원에서 정책 브로슈어가 오잖아요. 이메일로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거 너무 우편료도 아깝고. 솔직히 정말 보관하고 싶은 자료 많아요. 그런데 파일로 받으면 제가 보관해서 수업시간에 지역개발 같은 것도 언급을 하니까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브로슈어를 받으니까 제가 스캔을 하든

오히려 더 번거로운, 돈도 들지만. 그래서 꼭 이메일로 발송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음 회의 때 꼭 얘기해야지 했습니다. 식사자리에서 해도 되지만 좀 공식적으로 남기려고 지금 했습니다.

<원 장>

- 인쇄물로 된 것도 보내드리고 디지털 파일로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데이터센터는 저희가 상당히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연구원 규모에 그걸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 재난안전센터는 저희가 산불이 나면 직접 출동하고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재난 관련한 정책연구를 하는데, 이번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잘 구비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 점검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매뉴얼대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제안하는 보고서도 만들고 했는데, 매뉴얼은 굉장히 많은 걸로 잘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업무 교체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급성 있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에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도에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박정배 이사>

- 한 가지만 라이즈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7월경인가 교육부에서 몇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은 그와 관계없이 지사님께서 라이즈사업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이 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25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기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도 가능한 한 빨리 확충하고, 지금부터라도 사업발굴을 해야만 그때, 아마 내년도에 공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더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 장>

- 이번 이사회에 못 나왔습니다만, 센터장이 교육부 고위공무원 출신이신 분이 센터장으로 공모에서 선발이 되셨고, 9월 1일자로 임명이 되시고 그분 중심으로 센터를 꾸려나가는데,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이사님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25년도 부터지만 내년도에 각 대학에서 선정된 사업 집행 예산이 저희 라이즈 센터로 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상반기 중으로는 거의 세팅이 다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배 이사>

- 저는 최고로 좋은 성적 받을 때가 그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구도 보니까 MVP 받은 사람들이 MVP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밑으로 곤두박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그런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건의를 하나 좀 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여차저차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갈등이라는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예전에 갈등관리 관련으로 이수를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를 충남연구원에서 해서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충남지역의 각 시·군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사례연구를 해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한번 연구원에서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보면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돈이 거의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적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참에 충남연구원에서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을 시작해보면 최소한 우리 충남지역에서만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충남연구원에서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또 리더십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그런 방법도 좀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서 이참에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 장>

- 잠깐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센터 중에 공공갈등관리센터라고 있었는데 그게 본원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담당하는 박사님이 계시고. 충남에 주로 일어나는 갈등 양상이 축산 분뇨라든지, 석산 개발이라든지, 송전선 관련 이런 갈등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분석하고 그런 갈등을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갈등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연구와,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을 분석해서 갈등조짐이 있다고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도 좀 개발하고 그런 연구들을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최원철 이사>

○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이나 정관이나 개정하는 형식을 보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라리 만드실 때 관보를 준용해서 만들었으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나. 저희 행정에서 보는 양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 또 다른 하실 말씀,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가슴에 담지 마시고, 다시 하시려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요. 공이 제멋대로 나갈 때 이게 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데,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자. 아주 기본으로 돌아갈 때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님도 도에서는 막 급하다고 요구를 한다고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충남연구원의 기본은 역시 연구요, 그에 따른 정책방향의 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오늘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기본을 착실히 다져놓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사실 매미도 수년을 땅속에서 견디다가 나와서 한여름 구가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충남연구원이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문제를 접하고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 여러 이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8월 말일입니다. 억울한 거, 힘든 거 다 8월과 함께 날려 보내시고, 9월에는 여러분 개인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큰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202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의록 작성 날인

- 충남연구원 2023 제1차 임시이사회(2023. 8. 31)의 진행 및 의결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서명이사,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를 증명함.

의 장 김 수 민 (인)

이 사 류 주 현 (인)

이 사 임 재 영 (인)

감 사 한 지 훈 (인)